

평창조직위 시설국장에 손창환

도는 손창환 도 도로철도과장을 2018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시설국장으로 승진, 파견하는 인사를 지난 13일자로 단행했다. ▶프로필 11면

도로철도과장에는 토목직인 이희주 농업기반과장이 임명됐다. 이번 인사는 김순녀 전 동계조직위 시설국장의 명예 퇴임에 따른 것이다. 이성현기자

프로필



손창환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시설국장

손창환(44)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시설 국장은 “올림픽에 걸맞은 경기장 시설을 차질 없이 준비해 대회기간 강원도를 찾는 전 세계 선수단과 관람객, 마케팅 관계자들이 불편함 없이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

강릉 출신. 강릉고,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를 졸업. 1998년 제4회 지방고등고시에 합격해 도수자원관리팀장, 방재담당관, 도로철도과장 등을 역임. 취미는 싸이클.

메르스 불황에 유통·건설 고전

올해 2분기 도내 대형마트 매출과 건설 수주량이 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북지방통계청이 14일 발표한 강원 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도내 대형소매점 판매지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4.3% 감소한 115를 기록했다.

특히 메르스 여파가 업계에 한창 영향을 미치던 지난 6월에는 전달 대비 11.4%나 급감하며 메르스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건설경기도 동반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도내 건설 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17.5%나 감소해 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했다. 건축 수주는 사무실 및 점포, 관공서 등의 분야에서 13.8% 늘었지만, 도로 및 교량 등에서 58.5% 감소했다. 발주자별로는 공공부분이 55.3%, 민간부분이 52.9% 각각 감소했다. 김보경기자